‘장외 6자회담’ 분위기 무르익나

동북아협력대화 개막…양자·다자접촉 본격화
힐 오늘 도착…‘북·미 접촉’ 성사여부 불투명

9일 개막한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일본 도쿄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의 양자 또는 다자회담이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9일과 10일 중·미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입국을 앞두고 이른바 ‘장외 6자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10일 도착 예정인 힐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북미접촉’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숙소인 도쿄시내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남북협의를 갖고 북측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다.

김 부상과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같은 날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북일 접촉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측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돈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본부장은 8일 “필요하면 북측과 추가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9일 남북이 다시 만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개막된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천영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오른쪽)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8일 오후 도쿄시내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6자회담 재개관련 협의를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은 8일 협의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주요 6자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석대표가 9일 오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히 상황이 달라진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천 본부장과 김 부상은 이날 오전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개막한 북한 경제를 주제로한 NEACD 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남북 수석대표간에 깊은 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이날 관심을 끄는 대목은 우다웨이 중국 부부장의 일본 도착이다. 김 부상이 도쿄 도착전에 중국을 방문했지만 미측 대표인 힐 차관보의 10일 도착 이전에 북·중이 다시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중 접촉이 이뤄진다면 10일 오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힐 차관보의 10일 도쿄 도착을 계기로 이른바 ‘장외 6자회담’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미국과의 접촉에 대한 희망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는 북미접촉 성사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측은 북한이 회담에 무조건 복귀하지 않는 이상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만나 금융문제 자체가 거론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만기자 man21@

“유다 배신은 예수 지시”
유다복음 공개 ‘파문’

예수와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고문서 ‘유다복음(The Gospel of Judas)’의 내용 중 일부가 지난 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다복음은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등 신약성경의 기존 4대 복음과 달리 예수의 요구에 의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기술돼 있어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다복음은 “예수가 유다와 나눈 계시에 대한 비밀스런 이야기”라는 말로 시작된다. 또 예수가 유다에게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너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유다복음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

복원되기 전 부식되고 찢겨진 유다 복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9일 TV를 통해 전면 공개하는 유다복음 사본은 2세기경 그리스어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원본의 이집트 콥트어 번역판으로 3~4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피루스에 쓰인 이 사본은 1970년대 이집트에서 도굴꾼들에 의해 발굴됐으나 정작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한 고미술품상이 이를 미국의 학자들에게 30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하면서 부터였다.

그 뒤 이 문서는 여러 명의 주인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 갔다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왔으며, 현재 소유주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매세나 고미술 재단이다.

4월을 공개 시기로 잡은 것은 부활절과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것에 맞춘 것이다. /연합뉴스

“美 이민법이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WP “비정치성향 라틴계 주류 편입 시작” 진단

미국에서 이민법 논란을 계기로 그동안 정치적으론 ‘잠자는 거인’이었던 라틴계 이민사회가 “완전히 잠을 깼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진단했다.

특히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이 불법이민자를 중범으로 규정, 강력 단속·처벌토록 하자 미국내 1천200만 불법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틴계가 신분불안을 체감,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웃돕기 자선기금 모금 같은 일상적인 활동만 해오던 라틴계 지역사회 조직과 종교단체 등이 정치운동의 주류에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라틴계가 거대한 인구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아시아계 이민사회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적었으나, 이민법 논란이 라틴계 사회의 정치화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10일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0여개 주요 도시에서 다시 열릴 대규모 ‘반(反) 반이민법’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라틴계 단체와 조직들은 물론 라틴계 라디오방송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라틴계 사회의 변화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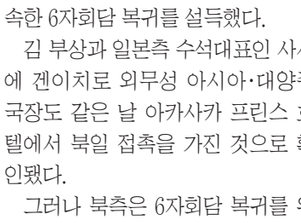
워싱턴지역에서 라틴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수개월만에 유명인사로 떠오른 페드로 비아기는 “5시간동안 재미있게 떠들면서 사람들의 근심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게 내 일이지만, 이번 일은 다른 사안이다. 라틴계의 처지가 지금처럼 불안했던 적은 없다. 이들을 돕는 데 몸을 던져야 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시위 주최측은 워싱턴에서만 10만명을 포함해 모두 “수백만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진만기자 man21@

영국서 300년전 ‘인피’ 제본 책 발견

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피부로 제본된 책〈사진〉이 잉글랜드 북부 리즈시 중심가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이 8일 밝혔다.

이 책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쓰였며, 프랑스 혁명을 전



후한 시기엔 인피로 책을 제본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18,19세기엔 살인 재판 기록을 살인자의 피부로 제본하거나, 해부학책을 해부 대상 시체의 피부로 제본하기도 했었다. 나치의 만행중에 대학살 희생자의 피부로 책을 제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팔 시위대 ‘손목 쇠사슬’ 시위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지난 8일(한국시간) 이스라엘 군 앞에서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장벽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베네딕토 16세 내달말 폴란드 방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내달 25~28일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국 폴란드를 방문해 나치 만행의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지를 돌아볼 예정이라고 바티칸이 8일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또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사제 임명 직후부터 수 십년 머물렀던 크라코프와 성모 마리아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 체스토호바, 전 교황의 고향인 바도비치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바티칸은 덧붙였다.

교황의 폴란드 방문은 수도 바르샤바를 시작으로 맨 마지막날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연합뉴스

네팔 보안군 시위대에 총격…3명 사상

갸넨드라 국왕 하야를 요구하는 네팔 야당과 학생 주도로 사흘째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팔 보안군이 지난 8일 포크하라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최소 2명이 다쳤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보안군 총격으로 부상한 간가다르 바랄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포크하라에서 보안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맞섰다고 말했다.

카트만두 등에서도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 무산을 기도했고, 이에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물러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라크 시아파 사원 또 폭발…19명 사상

8일 바그다드 남쪽 무사이브에서 폭탄을 적재한 자동차 한 대가 폭발해 시아파 순례객 4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그다드의 시아파 사원에서 3차례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79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2월22일 사마라에서 유서깊은 카디미야 사원의 황금 돔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폭파된 뒤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